

# 수산기반 정비로 어촌생활양식을 바꾸자

나가노 아키라 | 공립 하코다테 미래대학 교수

어업 생산과 어촌의 생활, 또 그것을 둘러싼 지역 환경에는 상호 관계가 있어, 그 관계 안에서 어업자는 최대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여 어항시설을 이용, 생산 활동과 생활을 하고 있다. 거기에는 비용대 효과로 나타낼 수 있는 어항 시설정비를 평가하기 전에 어업자가 최대한으로 효율화를 꾀하는 생활시간양식을 평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수** 산업에 있어서는 생활과 생산이 일체화되어 있어 어디까지가 생산이고 어디부터가 생활인지 분할하기 어렵다. 성어기에 어업자는 자택과 어항과 어장에서 생활 시간을 쪼개어 어떻게든 각각의 활동을 완수하고 있다. 특히 어가의 주부에게 있어 자택과 어항의 위치 관계는 개인 노동력 부담에 크게 영향을 준다.

여기에서는 어가와 어항의 위치가 수십 미터 차이로 인해 어가의 생활시간이 달라지는 사례를 들어 어항이 생활양식이나 생산양식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어촌 여성 노동력이 수산기반시설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논한다.

## 생활과 어항어장 정비

### 미나미키야베정의 어업

1993년과 1998년의 미나미키야베정의 어업의 개요를 표-1에 나타낸다. 인구, 양륙량, 조합원수가 일제히 20% 정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륙금액만이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1. 미나미카야베정의 어업

	1993년	1998년	'98년/'93년
마을의 인구	8,921	7,510	0.81
양륙량(톤)	68,549	50,384	0.74
양육인구(백만엔)	11,166	12,760	1.14
조합원수	1,711	1,476	0.86

이러한 생산을 유지해 온 미나미카야베정의 어항어촌은 해안선 34.8km에 8개항이 있고 어항 이외에도 해안에는 사로(斜路)가 산재하고 있다. 또, 연안에는 공동어업권은 물론, 다시마 양식의 구획어업권과 대형정치, 소형정치의 어업권이 틈새 없이 붙어 있다. 수산기반 시설 정비로 양륙금액 향상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 같은 어항내에서도 다른 생활시간양식

양식 다시마 어업 수확 시기의 표준적인 생활시간은 다음과 같다.

아침 3시에 기상, 3시반에 출항, 양식 다시마를 베어, 어항으로 양륙 후 다시마를 세정한다. 그것을 자택의 건조실에 가지고 가 매단다. 매달았던 다시마는 오

후 4시무렵 마르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내 보관한다. 보관한 다시마를 꺼내 가공한다. 가공할 때, 습기가 생기므로 재차 다시마를 건조해 가공된 다시마를 겹겹이 겹쳐 창고에 보관한다. 이러한 수확 작업은 7, 8월로, 그 후 가공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몇 차례에 이르는 검정을 거쳐 가격이 정해진다.

이작업은 각 어가의 어항으로부터의 위치와 가족구성에 따라 다시마 채취 작업 순서와 아르바이트 고용의 수나 작업 형태도 다르다. 다시마 채취가 끝나고 출항을 하는 11월경까지 각 어가의 다시마 가공 시기의 생활양식도 차이가 난다. 각 어가의 어항으로부터의 거리차라고 해도 최대 500m정도이며 50m정도만 달라도 각 어가의 작업과 생활시간 양식은 달라진다.

표-2는 어항 배후에 위치하지만 각각 거리가 다른 4개 어가의 작업 비교를 나타낸다. 각 어가는 다시마를 양륙하고 나서의 작업 순서, 다시마 운반 종료후의 가공 순서, 부하가 걸리는 공정에 대한 아르바이트의 고용수 등이 어항으로부터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은 각 어가가 다시마 성어기에서 가공시기까지 통해 최소의 노동 부하로 최대의 수확을 올리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수 십미터 단위의 어항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표-2. 다시마 양식어가 생활 생산의 비교

어가	가족구성	어항으로부터의 거리	작업순서	아르바이트의 고용
A	젊은 부부 (40대)	50m(자택) 500m(작업장)	3시부터 건조실의 다시마를 정리해 출항, 어항에서 작업장으로 운반, 세정, 건조, 오후도 출항	세정 6명, 건조 5명
B	노부부	50m	4시에 출항, 세정, 운반, 건조, 가공	세정 2명, 친척의 도움
C	장년부부	150m	4시에 출항, 세정, 운반, 건조, 가공	세정 5명, 건조 3명 늘려 가공 2명
D	젊은 부부 (20대) 親夫婦	25m	3시부터 건조실의 다시마 정리, 출항, 운반, 건조, 가공, 오후도 출항	세정 4명, 건조 4명

## 다시마 조업 생활시간양식에서 말할 수 있는 것

작은 어업집락 공동체 중에서 어항으로부터의 거리가 조금 차이나는 것과 가족구성이 다른 것에 의해 4개월 정도의 생활시간양식의 차이가 난다. 집락 공동체로서 모두가 거의 같은 시간에 모일 수 있는 생활시간 양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지역의 요구에 맞는 어항의 정비를 충분히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업자 전원이 어항에서 가까운 곳에 작업장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협업화다. 협업화는 거기에 알맞는 일정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등 저해 요인이 있지만 어업자의 고령화를 수반하는 어촌의 과소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다시마 양식업에 한정해 보면 품질 낮은 축성 재배 협업화가 조만간에 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때, 그러한 생산 가공 시스템에 알맞은 수산기반정비가 필요해 질 것이다.

## 어촌 생활의 과제와 대책

### 어촌 여성의 문제점

다시마 어업이 번성한 미나미카야베정의 어촌에는 많은 과제가 있지만, 수산기반정비가 어촌 생활 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자. 그 경우 어업활동뿐만 아니라 다면적인 역할을 하는 어촌 여성의 활동을 살펴보면 수산 기반정비의 역할이 명확하게 보인다

어항어촌정비는 어촌 여성 문제 대책의 일부이며, 대책은 개별의 문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복수의 대책이 작용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나미카야베정의 어촌 여성의 문제점을 표-3과 같이 앙케이트 결과로부터 20항목으로 정리했다.

어촌 여성의 문제점은 표-3 의 20항목에서 보듯이 「어촌 여성의 노동은 아침이 너무 일러 괴롭다», 「가사와 어업 양쪽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장소가 없다」 등이다.

이에 따른 대책을 유형마다 분류해 보편적 사항으로 해 정리하면 「제도 습관을 바꾼다」 및 「시설 설비를 정비한다」가 생각된다.

이것들은 노동의 배분 문제로 옮겨진다. 어촌에서 여성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거나 가정내에서 수행해야 할 노동량이 정해져 있다. 어촌 여성 노동의 배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시설설비의 정비와 시간 배분의 변화나 다른 어촌 구성원이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여성의 노동 부담량을 들어 주는 의식전환이 등을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 배분의 결정에 여성이 참가하게 되는 것 즉 여성의 주체성이 확보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에서 어촌 여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써 여성의 주체성 확보, 제도 습관의 개선, 시설 설비의 정비 등 3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써 수산기반정비의 역할을 알 수 있다.

### 문제점 20항목

문제점 20항목 및 그것들에 대한 대책을 분석하기 위해 미나미카야베정의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문제점의 5단계 심각도 및 20개 항목의 상호 영향에 관한 일대일 비교 앙케이트를 실시했다.

계산의 결과를 표-3에 나타낸다. 영향도가 큰 항목은 1. 번거리의 작업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2. 해상작업은 중노동이다, 5. 추위나 더위 등 기상 조건이 나쁘다, 10. 가사와 어업, 양쪽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20.

몸이 불편해도 작업을 할 수 없고 노동 시간 및 노동의 조건이 열악하다. 이러한 항목은 중심도가 큰 어촌 여성문제의 핵심이다.

### 문제점에 대한 3가지 대책의 기여도

각 항목의 대책으로써 여성의 주체성 확보, 제도 관습의 개선 및 시설 설비 정비, 이 3가지가 각각의 문제 항목에 어느 정도 관여되고 있을지를 앙케이트에 의해 조사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주체성 확보, 제도 습관의 개선은 시설 설비의 정비에 비해 소프트 대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표-3에 보듯이 소프트 대책과 시설의 정비가 서로 어울려서 각 항목의 대책이 된다.

종합 문제도로 본 3가지 대책의 비율 속에서 시설 설비의 비율이 큰 것으로는 7. 공원·도로 생활 환경에 관련되는 시설이 불충분, 11.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하다, 13. 육상 작업은 중노동이다, 15. 바람·눈 기상악화 시 작업 대처 시설이 없다, 16. 어선에 화장실이 없다는 항목이었다. 당연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시설에 관한 문제점은 시설 설비 정비가 가장 큰 대책이 된다.

여기서의 결론은 어촌 여성 문제에 대해 「여성의 주체성 확보」, 「제도 관습의 개선」, 「시설 설비의 정비」가 유효한 대책이 되는 것이다. 특히 어촌에서 수산 기반 시설 정비가 「여성의 주체성」과 「제도 관습」과 함께 실질적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 이후의 정비

이제 어업과 어촌과 수산기반정비는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나미카야베정에 있어서 어업 협동조합이 2003년 4월부터 합병해 6單協이 미나미카야베정 어업협동조합으로 하나가 되었다. 또, 어촌에서는 하코다테시(函館市)와 주변 4개 町村이 2004년 12월을 목표로 합병하게 되어 있다. 어협합병과 그로 인한 수산기반정비와 그 이용 및 어촌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

어업협동조합은 경제활동단체에서 당연히 경제적 효율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생산시설이나 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재편 집

표-3

문 제 항 목	문 제 지 표			총 합 문 제 도			
	심 각 도	영 향 도	중 심 도	주 체 성	제 도 관 습	시 설 설 비	총 합
1. 성어기의 작업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2.90	40.5	82.3	41.78	33.75	41.78	117.31
2. 해상작업은 중노동이다	2.40	44.1	87.2	39.32	30.25	36.30	105.87
3. 지역에서 인간관계가 어렵다	2.20	28.1	55.1	23.58	21.33	16.84	61.75
4. 정기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2.60	35.0	74.4	42.16	32.04	16.86	91.06
5. 추위나 더위 등의 기상 조건이 바쁘다	2.30	39.0	79.5	34.53	20.72	34.53	89.78
6. 추실감이나 시는 보람이 느껴지지 않는다	1.70	37.4	73.7	28.26	18.55	16.70	63.51
7. 공원·도로 등 생활 환경에 관련되는 시설이 불충분	2.30	28.8	52.9	19.25	21.39	25.67	66.31
8. 장기 휴가를 얻을 수 없다	1.90	38.8	72.0	32.26	29.18	12.29	73.73
9. 여성의 어협동조합원이 없다	1.90	23.8	51.8	15.53	17.27	12.23	45.03
10. 가사와 어업의 양쪽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2.30	39.6	76.9	35.87	32.88	22.42	91.17
11.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하다	2.00	24.3	50.3	16.21	14.30	18.11	48.62
12. 조업 신호의 대기나 장소 잡기를 위해서 아침이 빠르다	1.80	33.1	61.2	20.47	21.40	17.68	59.55
13. 육상 작업은 중노동이다	2.20	38.5	79.5	27.44	27.44	29.83	84.71
14.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는 장소가 적다	2.30	28.1	56.9	28.41	24.53	11.62	64.56
15. 바람·눈 등 때의 작업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1.25	29.4	59.6	12.43	11.35	12.97	36.75
16. 어선에 화장실이 없다	2.10	28.7	58.8	18.57	19.50	22.28	60.35
17. 어업자 이외의 지역인과 교류기회가 적다	1.20	19.1	41.8	10.29	7.02	5.62	22.93
18. 작업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	1.50	24.6	47.4	13.71	17.93	5.27	36.91
19. 해상 작업을 실시하는 가족의 안부가 걱정이다	2.50	33.2	65.7	30.64	26.81	25.53	82.98
20. 몸이 불편해도 작업을 할 수 없다	2.90	40.9	83.0	47.44	40.66	30.50	118.60

약화가 되어야 한다. 어촌의 생활은 도시와 격차가 없고 노동 환경이나 생활시간양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집락 공동체로서 갖춰야 할 모습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생산시설, 유통판매시설 및 판매 전략도 규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기반 정비에 관련해 3개의 움직임을 소개한다.

하나는 다시마의 종묘생산시설의 재편 통합이다.

지금까지 오사츠베 어항, 갓쿠미(川汲) 어항, 우스지리(臼尻) 어항, 오오후나(大船) 어항 4개소에 소규모로 분산하고 있던 종묘생산시설을 2개소에 집약할 계획이다. 이것은 어항의 분산과 반대 움직임이지만, 분산되어 있는 어항 중에서도 제일 새로운 어항에 종묘 생산시설을 정비할 계획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다시마 종묘 생산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 집약화는 조합 합병으로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는 새롭게 정비된 야스우라 어항의 분산 집약 유통이다. 각 單協에서는 그동안 물량이 적은 고급어종인 노랑가자미, 조피볼락, 넙치 등에 대해 각각 단협 중매인들과 가격 교섭을 해 제값을 받지 못해왔다. 또, 각각의 어협에서 대량으로 어획되는 명태에 있어서도 특정의 중매인을 상대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單協 생산자에게 있어 본래의 산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물량이 적은 고급 어종을 한개항에 모아 경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 분산 집약 유통이라는 말이 되었다. 현재는 모든 町의 명태를 야스우라 어항에 모아 입찰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충분한 효과를 얻어 가격도 좋아지고 있다.

셋째는 오오후나(大船)어항의 어협청년부의 다시마 오너(owner)제의 활동이다. 第3産 섹터(sector)의 지방 특색산업 센터에서 다시마를 구입한 사람 2,000명에게 다시마 양식 오너가 될 것을 다이렉트 메일로 권유

를 했다. 다시마 양식의 축성 재배는 가을부터 다음 해 여름까지 9개월 동안에 성장시켜 가공하고 제품화한다. 것이다. 양식은 양식밭줄 단위로 행해지는데 대체로 양식망 한 개로 44매의 다시마를 수확할 수 있다. 이 양식망 한 개의 오너 일대를 어협을 통해서 2만 7천 엔의 가격에 모집했다. 현재 80명의 오너가 가입했다.

미나미키야베정은 전국 다시마의 20% 이상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명이 없었다. 조합합병이 이루어져 이러한 청년부의 활동을 통해서 전국적인 브랜드가 형성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어항에서의 생산과 어촌의 생활을 필연적으로 바꾸어갈 것이다.

## 끝맺음

어업 생산과 어촌의 생활, 또 그것을 둘러싼 지역 환경에는 상호 관계가 있어, 그 관계 안에서 어업자는 최대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여 어항시설을 이용, 생산활동과 생활을 하고 있다. 거기에는 비용대 효과로 나타낼 수 있는 어항 시설정비를 평가하기 전에 어업자가 최대한으로 효율화를 꾀하는 생활시간양식을 평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비에 대한 평가 이전에 어업자나 어촌의 여성의 생활시간양식이 성립하는 최소한의 어항 시설 등의 정비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어항의 집약화에 대해서도 형상이나 위치에서의 집약을 묻는 것보다 분산하고 있는 어촌의 생활과 생산 속에서 어업활동의 집약화를 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 미나미키야베정에 있어서도 분산된 어촌과 어항이 있어 어협합병과 市町村 합병이 이루어져 어업 활동이나 그 외의 활동(시설은 아니다)의 집약화가 어촌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봐 주길 바란다. ▲